

## 1. 전동차. 낮

지상을 달리는 전동차.  
출입구에 기대 선 하윤주. 단발머리. 헤드폰. 가죽재킷에 레깅스. 올 블랙의 톰보이 스타일.  
리듬을 탄 듯 고개를 끄덕거리다 멀리 노약자석을 보면

덤수룩한 수염. 비뚤어진 안경. 신문을 든 채 졸고 있는 짝벌남의 모습.

하윤주. 순간. 날카로워지는 눈매.  
톡. 톱. 톱. 손잡이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손가락.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며  
 짝벌남. 주변 승객들. 손목시계가 교차된다.

하윤주

터널 안으로 들어가는 전동차. 소음이 커지고

## 2. 승강장. 낮

빠양~ 전동차가 도착하는 지하 승강장.  
구석 벤치에 앉아 스토쿠를 푸는 제임스. 단정한 코트. 가죽가방.

숫자들을 빠르게 훑는 눈동자. 망설임 없이 빈칸을 채우는 만년필.

타고 내리는 승객들을 유심히 살피다 책을 덮고 만년필을 포켓에 끼워 넣는다.  
빈틈없는 행동과 눈빛. 차가운 느낌.

안내(E)

열차. 출입문 닫습니다.

CCTV 화면 - 마지막으로 전동차에 몸을 싣는 제임스.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 3. 전동차. 낮

승객들을 헤치며 이동하는 제임스. 매너 있는 모습 중간중간 뒤를 의식하는 눈빛.  
우웅~ 진동하는 휴대폰. 발신자를 확인하는 제임스. 가죽가방을 열며 브로슈어를 꺼내면  
[National Foods] 상호 아래로 외국 식료품 사진과 가격표가 보인다.

다른 칸

짝벌남을 주시하는 하윤주. 덜컹~! 전동차가 흔들리며 잠에서 깨는 짝벌남.

짝벌남

어?!

신문을 떨어뜨리며 일어서는 모습.  
역을 놓친 듯 두리번거리다 옆을 지나가는 쇼핑녀와 부딪힌다.

하윤주

!!!

하윤주. 날이 선 표정. 쇼핑백을 집어주는 짝벌남을 보면

쇼핑녀

뭐에똥?!

짝벌남

어. 미안.

백을 낚아채고 하윤주 옆을 스치는 쇼핑녀. 멀어지는 여자를 돌아보는 하윤주. 의심의 눈초리.

시선의 공백 - 승객들 다리 사이로 신문을 쥌는 누군가의 손.

통화 중인 제임스. 노선표를 보는 짝벌남의 뒤를 무심히 지나친다.

짝벌남

...

안경을 벗으며 눈을 비비는 짝벌남. 날카로운 눈매. 뜻 모를 미소.

#### 4. 승강장. 낮

타고 내리는 승객 사이로 보이는 하윤주. 짝벌남의 뒷모습.

출발 안내와 함께 문이 닫히는 순간. 칙! 문 사이에 끼어드는 가죽가방.

우웅~ 다시 열리면 전화를 끊으며 내리는 제임스. 빈 승강장을 살피다 계단을 오른다.

#### 5. 도심거리. 낮

길게 이어진 고층 건물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짝벌남의 뒤를 쫓는 하윤주.

차들 사이로 보이는 짝벌남. 휘익~ 골목으로 방향을 틀면 뒤이어 스치는 경찰차 한 대.

하윤주. 도로변 난간을 뛰어넘으며 무단횡단을 한다.

#### 6. 주차빌딩. 낮

허름한 주차타워. 드문드문 세워진 차들.

구석에 주차중인 중형차. 차에서 내려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중년남.

구름이 걷히며 태양이 드러나는 하늘. 빌딩 유리벽에 반사된 빛이 주차장 안을 밝힌다.

비상구의 검은 그림자가 점점 밝아지면. 어둠에서 드러나는 제임스의 얼굴.

제임스

...

머리 위 감시카메라를 바라보는 무표정. 날카로운 빛이 감시카메라 렌즈에 맺힌다.

CCTV 화면 - 빛을 받아 하얗게 번진 화면. 형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어른거리고

중형차

제임스. 컵 홀더에 텀블러를 놓고 멀티볼. 타이머 스위치 등을 조수석 위에 가지런히 펼친다. 시선을 전방에 고정된 채 무언가 설치하는 모습.

순간. 멀리 보이는 중년남. 차로 돌아오며 주머니를 뒤적이고

차가운 눈빛. 작업을 계속 하며 다가오는 사내를 주시하는 제임스.

‘어?!’ 가방에서 지갑을 찾은 중년남. 다시 비상구로 몸을 돌린다.

## 7. 도심거리. 낮

공사중인 인부들. 다다다~ 커다란 드릴로 아스팔트에 구멍을 내고 있다.  
[신성저축은행] 앞. 휴대폰을 꺼내 드는 짝벌남. 엄청난 소음에 귀를 막으며

짝벌남  
말해.

차가운 목소리. 주변. 길 건너 인도를 살피는 날카로운 눈빛.

작은 키. 비만형 몸매의 똥. 개걸스레 닭꼬치를 뜯으며 걷는 모습.

짝벌남  
내가 걸개.

손목시계를 보는 짝벌남. 정문 서터가 내려가는 [신성저축은행] 앞을 지나가고  
하윤주. 건너편 짝벌남을 주시하며 똥을 지나친다.

## 8. 신성저축은행. 낮

마감을 앞 둔 객장. 어디선가 울리는 휴대폰 진동음.  
몇 안 되는 손님과 업무를 마무리하는 직원. 강철로 된 후문을 지키는 보안요원.  
소파에 앉은 특공. 빨데안경. 정장차림. 굳은 표정으로 전화를 받는다.

특공  
네...

도심거리

버스정류장의 하윤주. 노선표를 보는 척 멀리 공중전화박스를 보면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전화번호부에 메모를 하는 짝벌남. 부욱~ 한 장을 찢고 전화를 끊는다.

## 9. 고층빌딩. 낮

비상계단을 올라가는 제임스. 한 층. 한 층. 위를 살피는 신중함.

제임스  
...

쿵! 쿵! 쿵!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 잠시 멈춰섰다 다시 발걸음을 옮긴다.

## 10. 편의점. 낮

생수병을 들고 카운터로 오는 똥. 지폐몽치에서 천원을 뽑아 던지고 벌컥벌컥~ 물을 마시고  
뻑! 액정에 찍히는 [1,100] 금액.

똥  
쓰벌~ 백 원은 니미...

주머니를 뒤집는 똥. 담배. 라이터. 껌 등을 카운터 위에 펼치며 동전을 찾으려면  
잡동사니 중 교통카드를 집는 점원. 짜증난 표정.

점원  
이걸로도 돼요.

리더기에 교통카드를 대는 손.

## 11. 맥도날드. 낮

땀! 경쾌하게 울리는 카드 결제음.  
카운터 앞의 하운주. 밀크셰이크를 들고 자리를 찾는 척 두리번거리고

**점원**  
손님? 지갑 가져 가셔야죠.

잠시 당황. 지갑을 챙기며 짝별남을 의식하는 눈.

**짝별남**  
육백삼십칠. 이백. 사백이십이. 합이 천이백오십구...

매장 가운데 앉은 짝별남.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를 차례로 노려보다

**짝별남**  
그래. 오늘이 마지막.

구석자리에 앉는 하운주. 햄버거를 씹는 짝별남을 바라본다.

## 12. 빌딩 옥상. 낮

시야가 넓게 트인 옥상. 난간을 돌며 거리를 살피는 제임스.

오가는 사람들. 차들. 점멸하는 신호등. 도로공사중인 인부들.

맞은편 [신성저축은행]을 내려보는 제임스. 가죽가방 속 이중지퍼를 여는 손.

무전스캐너와 타이머. 수첩. 망원경 등이 가지런히 들어있다.

**횡단보도**  
거리의 뚝. 옥상 위 제임스를 올려보다 도로에 세워진 짙은 썬팅의 봉고로 눈을 돌리면

**봉고**  
운전대를 잡은 엠쓰리. 뒷좌석에 마주 앉은 고희압. 허수아비. 스쿠프의 긴장된 표정들.

**빌딩 옥상**  
스캐너. 휴대폰에 이어폰을 연결하고 천천히 스캐너 다이얼을 돌리는 제임스.  
치직. 치지직. 이어폰에 집중하며 경찰 교신을 찾는다.

째깍. 째깍. 4시 정각을 향하는 초침.

## 13. 주차빌딩. 낮

구석에 세워진 중형차 안. 시거잭에 연결된 절전 타이머 스위치의 모습.  
스위치에서 뿜힌 구리선이 텀블러 속 액체에 잠겨있다.

정각을 향해 돌아가다 툅! 붉은 선에 멈추는 타이머. 빠직! 구리선 끝에서 불꽃이 튀면

펑! 파편과 불길을 뿜는 중형차. 주변 차량의 경보음이 주차장에 울린다.

빌딩 옥상  
이어폰에 집중한 제임스.

**상황실(E)**

한울 주차빌딩. 한울 주차빌딩. 차량화재. 차량화재 신고 접수.  
도심을 울리는 사이렌. 멀리 빌딩 사이로 검은 연기가 피어 오르고 있다.

**제임스**  
시작.

**도심도로**

끼이익~! 경찰차. 소방차들과 엇갈리며 급커브를 트는 봉고. [신성저축은행] 앞에 멈춰서면  
문을 열며 뛰어 나오는 사내들. 반투명 마스크를 쓴 기괴한 모습.

**14. 신성저축은행. 낮**

안경을 벗고 마스크를 쓰는 특공. 빠른 걸음으로 보안요원에게 다가간다.

**모니터 룸**

은행 곳곳이 보이는 모니터들. 소리 없는 화면.

모니터 - 보안요원을 제압하는 특공. 후문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사내들.

**객장**

총열이 짧은 엽총을 던지는 허수아비. 척! 총을 받아 창구 안으로 뛰어드는 특공.

탕! 탕! 천정으로 총알을 날리는 고혈압. 형광등이 터지며 비명이 울린다.

**고혈압**  
왜지기 싫음 앞드려!!!

지점장의 멱살을 잡아 금고 앞으로 던지는 특공. 마스크에 막혀 울리는 목소리.

**특공**  
열어.

벌벌 떨며 웅크리는 지점장을 보다 탕! 서류더미에 총알을 날리고 다시 창구를 겨눈다.

**특공**  
열어!!!

케이블타이로 사람들을 묶는 스쿠프. 지갑에서 신분증, 지폐를 꺼내는 고혈압.

**고혈압**  
니들 신상 털린 거야. 쓸데 없이 나불거리면 무덤까지 쫓아간다.

**모니터 룸**  
녹화장치 메모리를 뽑는 스쿠프의 날쌔 동작. 하나 둘 꺼지는 모니터들.

**금고**

지폐가 가득한 선반을 지나치는 특공과 허수아비.  
스윽~ 소매를 걷는 두 사람. 팔뚝 위로 개인금고 번호가 4개씩 적혀있다.

척! 척! 해당 금고 위에 붉은색 스티커를 붙이는 손.

가방에서 드릴을 꺼내고 휴대폰에 연결된 이어마이크를 잡으며

**특공**  
준비 됐습니다.

**15. 빌딩 옥상. 낮**

망원경을 들고 사거리 신호등을 보는 제임스.

망원경 시점 - 빨간 불로 바뀌는 신호등.

쿵!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손. 3분을 가리키던 바늘이 빠르게 줄기 시작한다.

위잉~ 드릴을 열쇠구멍에 밀어 넣는 특공과 허수아비.  
경보가 울리며 점멸하는 보안등. 금고서랍에 가득한 무기명 채권들.

순간. 이어폰에 울리는 경찰교신.

**상황실(E)**

신성저축은행. 327. 327 상황. 인근 순찰차량 응답 바람.

망원경을 드는 제임스. 멀리 사거리와 은행 앞을 번갈아 본다.

끼이익~! 유탄을 하며 달리는 경찰차들. 아스팔트 위로 하얀 연기가 퍼지고

**16. 신성저축은행. 낮**

휴지통에 모은 휴대폰을 어항에 쏟아버리는 고혈압.

째깍. 째깍. 2분이 채 안 남은 손목시계의 타이머.

스쿠프. 모니터 룸에서 뛰어나오며 고함 친다.

**스쿠프**

1분 40초!!!

반쯤 열린 금고를 돌아보다 창구를 뛰어 넘는 고혈압.

**금고**

개인금고에서 나오는 특공과 허수아비. 돈다발을 배낭에 쑤셔 넣는 고혈압을 본다.

**특공**

뭐 하는 거야?!

**고혈압**

씨발~ 좀 만 먹자. 차 포 떼면 조또 없잖아!!!

**특공**

늦었어.

척! 고혈압의 팔을 잡는 특공의 손. 마스크 너머로 서로를 노려보는 두 사람.  
금고 밖에서 스쿠프의 고함이 울린다.

**스쿠프(OFF)**

30초!!!

### 17. 도심도로. 낮

은행을 나와 봉고에 올라타는 허수아비와 스쿠프.

봉고  
당황한 엠쓰리. 돌아보며

엠쓰리  
왜 돌아야???

### 18. 빌딩 옥상. 낮

은행을 내려보는 제임스. 매서워지는 눈빛. 애앵~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진다.

3.2.1. 시간이 줄어들다 바늘이 멈추는 타이머. 동시에 직진신호로 바뀌는 신호등.

횡단보도  
은행 입구를 바라보는 똥. 마른침을 삼키고  
끼이익~! 커브를 틀며 등장하는 경찰차들.

똥  
쓰벌...

박스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인부들. 짐 위에 놓인 작업복을 채가는 똥의 손.

망원경 시점 - 박스트럭에 올라타는 똥.  
망원경 시점 - 은행을 나오는 특공과 고희압. 봉고에 올라탄다.

봉고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소리치는 특공.

특공  
밟아!!!

박스트럭  
작업복 차림의 똥. 부앙~ 액셀을 밟으며 사이드브레이크를 당긴다.

끼이익~!!! 아스팔트 위를 헛도는 바퀴. 짙은 연기가 퍼지는 도로.

휘럭~ 핸들을 돌리는 손. 트럭이 드리프트를 하며 박스칸이 도로를 막기 시작하고

부앙~ 굉음을 내며 달리는 봉고. 아슬아슬 트럭을 피해 속도를 높이면  
뒤늦게 브레이크를 잡은 경찰차들이 팡! 팡! 박스칸 밑으로 처박힌다.  
팡! 뒤이어 소화전을 들이받는 승용차. 최악~!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물줄기.

빌딩 옥상  
망원경을 든 제임스. 굳은 표정.

제임스  
...

망원경 시점 - 클락슨이 울리는 사거리. 난장판이 된 모습.  
망원경 시점 - 박스트럭에서 뛰어내려 골목으로 사라지는 똥.  
망원경 시점 - 사거리를 지나 멀어지는 봉고.

칙! 칙! 가방을 정리하는 손. 신경질적인 느낌.

빌딩 추문

거리로 나오는 제임스. 주변 가득한 회사원들 사이로 자연스레 묻힌다.

## 19. 맥도날드. 낮

에앵~ 멀리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쩍별남. 알약 여러 개를 콜라와 삼키다 '어?' 의아한 표정으로 하운주를 본다.

하운주

!!!

눈이 마주치는 하운주. 외면하며 휴대폰을 꺼내고

[ㄱ ㄴ ㄷ ㄹ...] 액정에 찍히는 의미 없는 메시지.

뚜벅! 뚜벅! 다가오는 발소리. 푹푹! 테이블을 두드리는 썩별남의 손.

하운주. 고개를 들면 환한 표정의 썩별남이 서 있다.

쩍별남

아~ 영숙이 너. 어떻게 지냈어?

당황이 스치는 하운주의 표정. 마주 앉는 썩별남을 보며

하운주

잘못 보신 거 같은데요.

쩍별남

에이 맞는데~ 해숙이 동생 영숙이.

안경을 올려 쓰며 하운주를 보는 썩별남. 고개를 가웃하며

쩍별남

어? 아냐? 내가 착각했나 봐. 미안해요. 미안.

하운주

뭐. 그러실 수도 있죠.

가방을 챙겨 일어서는 하운주. 순간. 칙! 팔목을 잡는 손.

쩍별남

근데... 영숙이도 아니면서 왜 따라다녀?

쩍별남. 순식간에 서늘해지는 눈빛.

쩍별남

어제 삼선교. 아까 지하철. 지금 여기.

하운주

!!!

당황한 하운주. 휘익~ 썩별남의 손을 비틀어 잡힌 손을 풀면

퍽! 하운주의 정강이를 걷어차며 테이블 위 음식을 바닥에 쏟아버리는 썩별남.

한바탕 소동. 햄버거를 씹는 남자 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된다.

황반장

아이구. 조심 좀 하지...

하윤주 앞에 쭈그려 앉은 짝벌남. 별일 아니라는 듯 음식들을 주워 담으며

짝벌남  
마이너스 10점.  
하윤주  
???

짝벌남  
들켜서 5점. 대처실패 4점. 지금 그 멍청한 표정 1점.

점퍼를 제치면 허리춤에 찬 경찰뱃지가 보인다.

짝벌남  
나. 특수범죄과 감시반 반장 황상준.

자리에 앉는 황반장. 미간을 찌푸린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왜? 기분 나빠?  
하윤주  
아닙니다.

하윤주. 툭. 툭. 옷을 털며 마주 앉는다.

황반장  
내가 지하철에서 몇 시에 내렸지?  
하윤주

...  
 황반장  
대답 안 해?  
하윤주  
...

황반장을 뵈히 보며 툭. 툭. 툭.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는 하윤주. 역시 뵈히 쳐다보는 황반장.

황반장  
뒤 끝 있네? 그냥 끝낼.  
하윤주

2호선. 7번 칸. 편성번호 59. 15시 30분 역삼역 하차.

말을 끊으며 빠르게 답하는 하윤주. 또렷해진 눈빛. 보란 듯이 기억을 쏟아낸다.

하윤주  
5번 개찰구 통과. 1번 출구로 나와 인도를 걷다...

## 20. 도심거리(기억). 낮

황반장. 공사 소음에 귀를 막으며 휴대폰을 꺼내고 길 건너 황반장과 손목시계를 보는 하윤주. 툭. 툭. 손가락을 움직이는 모습. 전화를 끊으며 주변을 살피는 황반장.

하윤주(OFF)  
신성저축은행 앞. 15시 51분. 휴대폰. 10초간 통화.

공중전화의 황반장. 전화번호부에 메모를 한 뒤 부욱~ 찢으면

**하윤주(OFF)**

200 미터 이동 후 공중전화. 2분간 통화. 전화번호부에 메모를 했고.

전화번호부를 펼치는 하윤주. 찢긴 페이지를 찾아내 앞뒤 면을 더듬다 부욱~ 페이지를 찢는다.

**맥도날드**

탁! 찢어온 페이지를 테이블 위에 놓는 하윤주. 자신 만만한 표정.

**하윤주**

여기 필압이 남아 있습니다.

황반장. 눈길도 주지 않고 질문을 계속한다.

**황반장**

오늘 접촉한 사람은?

**하윤주**

15시 24분.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

계속되는 질문과 막힘 없는 대답. 대결을 하는 듯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21. 전동차(기억). 낮**

쇼핑녀와 부딪히는 황반장.

**하윤주(OFF)**

30대 여성. 쇼핑백. 특이점 없음.

쇼핑백을 주고 받는 손을 유심히 보는 하윤주.

**황반장(OFF)**

그 여자는?

**하윤주(OFF)**

키 170 이상. 긴 머리. 갈색 원피스. 흰색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황반장. 날카로운 눈빛. 쇼핑녀에 시선이 쏠린 하윤주를 본다.

**22. 맥도날드. 낮**

같은 눈빛의 황반장.

**황반장**

신문은 누가 주웠지?

**하윤주**

신문?

당황한 하윤주. 흔들리는 눈빛.

**황반장**

신문. 내가 떨어트린 신.문.

탁. 탁탁. 초조한 듯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 기억을 더듬는 하윤주.

신문을 놓치며 일어서는 황반장. 쇼핑녀와 부딪히고 백을 집어주는 모습. 황반장을 등지며 쇼핑녀에 시선이 쏠리는 하윤주.

시선의 공백. 미간에 주름이 깊게 파이는 하운주. 푹푹. 푹.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소리.  
 하나 둘씩 사라지는 열차 안 사람들. 탁. 탁. 탁. 불이 꺼지며 밀려오는 어둠.  
 우우웅~ 엔진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 암전되면.

**하운주(OFF)**  
 놓친 거 같습니다.

**황반장(OFF)**  
 정확히 말해. 놓친 거야? 놓친 거 같은 거야?

길게 마주보는 두 사람.

**하운주**  
 놓쳤습니다.

**황반장**  
 Inattentional Blindness.  
 주의력 착각! 부주의 맹시라고도 하지.  
 인간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는 버릇이 있다는 뜻.  
 넌 지하철 안 모든 걸 봤어.  
 하지만 보고 싶은 거. 주의를 기울인 것만 기억한다는 거야.  
 감시 대상인 나. 나랑 부딪힌 싸가지. 끌랑 두 개.

**하운주**

...

**황반장**  
 놓친 건가? 놓쳤다고 생각하는 건가? 정말 못 본 걸까?

월새 없이 내뱉는 황반장.

**황반장**  
 눈감아.

**하운주**  
 ???

**황반장**  
 눈.

눈을 감는 하운주.

**황반장**

15시 24분. 삼성역과 선릉역 사이.  
 감시대상이 신문을 떨어트리며 잠에서 깬다.  
 덜컹!

### 23. 전동차(기억의 재구성). 낮

덜컹! 잠에서 깨며 신문을 놓치는 황반장.  
 어둑한 전동차 안. 황반장과 하운주 두 사람뿐. 모두 사라지고 없다.

**황반장(OFF)**

옆 칸에서 등장한 싸가지와 부딪히고, 쇼핑백을 집어준다.

옆 칸에서 등장하는 쇼핑녀. 황반장과 부딪히고 백을 건네 받는 모습.

**황반장(OFF)**

싸가지가 사라지고 다시 감시대상을 돌아본다.

멀어지는 쇼핑녀를 보다 다시 황반장을 보는 하운주의 시선.  
시선을 따라 탁. 탁. 탁. 내부 등이 켜지며 사라졌던 승객들이 나타난다.

**맥도날드**

하운주. 무섭게 집중한 얼굴.  
톡. 톡톡. 빠르게 움직이는 손가락을 보는 황반장.

**황반장**  
뭐가 보이지?

노선표를 올려보는 황반장.  
승객들 사이로 신문을 든 손이 보인다 스윽~ 드러나는 평범한 대학생의 얼굴.  
눈을 뜨는 하운주.

**하운주**  
20대 중반 남성. 호남형. 근색점퍼. 청바지. 카키색 배낭.  
**황반장**  
확실해?  
**하운주**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답하다 '응?' 이느새 손가락을 잡고 있는 황반장의 손을 보고 감추듯 빼버린다.

**황반장**  
에이아르쥬유에스. 아거스!!!

황반장. 적! 열 손가락을 펴 보이며

**황반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눈이 백 개 달린 거인.  
눈같이 백 개나 있으니 절대 놓치는 게 없지.  
난 모든 걸 보고 빠짐없이 기억하는 사람을 원한다.  
**하운주**  
...

길게 뚝을 틀어주는 황반장. 하운주의 손을 보며 못마땅하단 표정.

**황반장**  
버릇이야 강박이야? 정신 없게 소리...  
**하운주**  
불합격 입니까?  
**황반장**  
건 아까 결정 났고.

먹다 남은 밀크셰이크를 들여보며 찻잔. 허를 차다

**황반장**  
이백구십 칼로리. 옳지 않아!

쿵! 전화번호 페이지 위에 셰이크잔을 놓고 성큼성큼 매장을 나가는 황반장.  
멀어지는 황반장을 보던 하운주, '어?' 셰이크잔에 깔린 페이지를 본다.

가방을 뒤져 연필을 꺼내는 손. 구겨진 전화번호부를 펼치고  
스윽~ 흑연이 묻는 전화번호부 페이지. 필압이 남은 자리에 드러나는 메모.

- 출근해

메모를 보는 하윤주. 작게 미소가 보이는 얼굴.

## 24. 도심거리. 낮

매장 안 하윤주를 보는 황반장. 우웅~ 휴대폰이 진동한다.

**황반장**  
말해... 은행?

앵~ 사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 경찰차들. 통화를 하다 굳는 표정. 고개를 돌리면  
황반장의 시점 - 멀리 검은 연기가 퍼지는 주차빌딩이 보인다.

**황반장**  
응. 보고 있어.

인파에 섞이며 다시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 황반장.

## 25. 한강둔치. 저녁

서울 외각. 공사중인 한강 다리 밑.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커다란 드럼통을 든 똥. 담배를 문 채 봉고에 시너를 붓고  
특공일행은 은행에서 뺏은 신분증과 자신들의 소지품, 옷 등을 봉고 안에 던져 넣는다.

두툼한 돈다발을 보며 실실 거리는 고혈압.

**고혈압**  
니미... 그 놈의 계획. 시간. 액션은 우리가 다 하는데  
뒤에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는...

옷을 갈아입으며 고혈압을 노려 보는 특공.

끼익~! 거칠게 멈춰서는 검은색 세단. 자욱한 흙먼지.

차에서 내리는 제임스. 빠른 걸음으로 고혈압을 향해 간다.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는 고혈압.

**고혈압**  
조또... 몇 초 늦은 거 가지...

퍽! 주먹을 휘두르는 제임스. 쓰러지는 고혈압의 얼굴을 다시 퍽! 구둣발로 날려버린다.

찌익~ 찌익~ 고혈압의 얼굴에 박스테이프를 감는 제임스. 싸늘한 표정.  
고혈압. 팔다리가 묶인 채 버둥거리고

**고혈압**  
읍... 읊...

쿵! 타이머를 누르고 바닥에 던지는 제임스. 시그널 플레이어를 점화시켜 봉고에 던지면

화악~ 불길에 휩싸이는 봉고. 쟈각! 쟈각! 천천히 줄어드는 타이머 바늘.

눈이 벌개지며 바닥을 구르는 고혈압. 자욱한 흙먼지. 목 전체에 퍼렇게 핏줄이 올라온다.

화염이 어른거리는 제임스의 얼굴. 단호한 표정으로 특공일행을 보며

**제임스**

계획이 어긋나면 귀찮은 일이 생겨.  
누군갈 죽여야 하고 여길 떠나야 하고...

고혈압. 킁! 킁! 점점 숨이 잦아들며 경련을 시작하면 땀~! 타이머의 알람이 울리고  
스윽~ 만년필을 꺼내는 제임스. 날카로운 펜촉.

**제임스**

십 년. 작은 욕심 때문에 십 년을 버렸어.

푹! 망설임 없이 고혈압을 찌르면 인상을 쓰며 외면하는 특공일행들.  
거친 숨을 내뿜는 고혈압. 만년필에 풀린 테이프 틈으로 침과 피가 섞여 흘러나온다.

**특공**

죄송합니다.

옷 매무새를 정리하는 제임스. 무표정. 특공에게 가방을 건네받고 말 없이 차에 오르고  
부웅~ 점점 멀어지는 제임스의 새단. 미등 불빛이 어둠으로 사라진다.

## 26. 정보 분석실. 저녁

모니터를 뚫어져라 보는 십여 명의 남녀들. 노타이에 셔츠. 스마트한 느낌.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황반장. 재킷을 집어 던지며 책상 사이를 돌아다닌다.

**황반장**

있어?

**정보 1**

없습니다.

[신성저축은행] 밖 특공일행의 모습이 분석실 모니터에 떠 있는 모습.

**황반장**

없어?

**정보 2**

네.

바퀴 달린 의자에 앉은 황반장. 쭈욱~ 미끄러지며

**황반장**

송팀아, 주차타워는?

CCTV 화면 - 하얗게 번진 화면. 형체를 알 수 없는 실루엣이 어른거린다.

모니터를 보다 고개를 흔들는 송팀.

**송팀**

그냥 하얗고 까매요.

**황반장**

주변 거리는?

**송팀**

그냥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황반장**  
그래. 그냥 계속 까불어라.

퍽! 뒤통수를 갈기며 돌아서는 황반장. 송팀. 날 있던 일인 듯 다시 모니터를 주시하고  
황반장이 지나치는 정보 1의 모니터. 사람들 사이에 섞인 똥의 모습이 보인다.

**27. 구뚏방. 밤**

지하상가에 위치한 좁다란 구뚏방. 머리 위 창으로 보이는 행인들의 다리들.  
스도쿠를 푸는 제임스와 말없이 구두를 닦고 있는 중노인. 친근감과 긴장감이 묘하게 섞인 느낌.  
반백의 머리. 눈가에 깊은 주름이 보이는 정통. 구두에 묻은 흙먼지를 스윽~ 닦아내며

**정통**  
다른 문제 없었고?  
**제임스**

...  
**정통**  
너무 겁준 거 아냐?  
할 일이 많은데 사소한 건 눈감아 주면서 가야지.

**제임스**  
경고는 확실하게. 배운 대로 했습니다.

**정통**  
내가 그렇게까지 했었나?

말 없이 바라보는 제임스. 의자 옆 수납장을 열어 차 키를 넣고 문을 닫는다.

**밀실**  
구뚏방의 이면. 천고가 높은 어두운 공간. 양쪽 벽에 가득 쌓여있는 구두상자.  
밀실의 사내. 드록~ 벽에 붙은 작은 문을 열면 제임스의 차 키가 놓여있다.

**정통(OFF)**  
의뢰인이 그 은행 회장놈이야.  
영업정지 전에 한 몫 챙겨서 중국으로 가시겠다는거지.  
요즘 저축은행들 알잖아?

지하주차장  
트렁크 속 가방을 여는 밀실남. 가지런히 정리된 채권다발과 보석들을 확인한다.

**정통(OFF)**  
더 웃긴 건 물건 주인.  
백억이 넘는 채권을 도둑 맞아도 신고 조차 할 수 없는 분.

구뚏방  
제임스를 빤히 보는 정통.

**정통**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제임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정통**  
민나 도로보데쓰.  
정치가나. 자본가나. 우리나라... 모두 다 도둑놈들이지...

똑똑! 벽 너머에서 울리는 노크소리.

제임스. 다시 수납장을 열면 서류봉투 위에 차 키가 놓여있다.

**정통**

간만에 컴백했으니 경찰도 바짝 쫓아줄테고...  
이번 건 좀 더 깔끔하게 해 봐.

서터가 내려진 상가 복도를 걷는 제임스.

멀어지는 제임스를 보는 정통. 서늘한 눈빛. 순간, 따르릉~ 날카로운 전화벨이 울린다.

**정통**

네. 전달했습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라인에 반듯하게 세워진 검은색 세단. 트렁크 가득한 구두상자를 열어보는 제임스.

**제임스**

...

가지런한 오만 원권 지폐다발을 바라보다 쾅! 트렁크를 닫으면 화면 압전.

## 28. 정보 분석실. 밤

모니터를 보다 알약을 삼키는 황반장. 눈을 지압하며 중얼중얼.

**황반장**

얼굴 없고. 단서 없고. 계획 뚝 부러지시고, 새끼들... 유학파야?

모니터 - 박스트럭에서 내려 달리는 똥. 원거리에 작업복차림. 얼굴을 식별하기 힘들다.

**송팀(OFF)**

반장님! 여기!!!

벌떡 일어나 송팀에게 달리는 황반장.

**황반장**

뭐 나왔어?!

모니터 - 거리를 걷는 황반장과 뒤를 미행하는 하윤주의 모습.

송팀. 흐뭇한 시선으로 하윤주를 가리키며

**송팀**

이 언니가 신입입니까? 아~ 그냥 막 조타~

**황반장**

근데 이 새끼가...

매릴 것을 찾다 번뜩이는 눈빛. 퍽! 송팀의 뒤통수를 후려친다.

**황반장**

잠깐!!! 다시 돌려봐!

모니터 - 고개를 숙인 채 하윤주를 스치는 똥. 닭꼬치를 들고 있다.

몸을 돌려 다른 모니터를 확인하는 황반장. 쿡! 정지버튼을 누르면

모니터 - 카메라를 피해 생수를 마시는 똥. 화면이 멈춘다.

타임코드를 확인하며 중얼중얼.

**황반장**

물먹는 하마. 15시 57분...

드르륵~ 키보드를 치는 송팀. 날렵한 손동작. 진지해진 표정.  
박스트리의 똥과 물을 마시는 똥을 캡처해 체형과 걸음걸이를 비교한다.

**송팀**

맞아요!

**황반장**

오케이! 키 175 근방. 카키색 건빵바지 입은 하마 새끼 찾아!

모니터를 확인하며 소리치는 정보팀들.

**정보 1**

현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15시 12분.

**정보 2**

15시 02분. 195 D 횡단보도를 건너 갑니다.

매직을 들고 지도 위에 표시를 하는 황반장. 모두 [신성저축은행] 주변.

**황반장**

얼굴! 얼굴 찍힌 거 없어???!!!

**정보 3**

반장님!!!

편의점 CCTV 화면 - 주머니를 뒤적이는 똥. 교통카드를 리더기에 찍는 점원.

황반장. 똥의 얼굴을 보며 실실 웃는다.

**황반장**

반갑습니다. 이 새끼야~

깨알 같은 결제내역을 출력하는 프린터.  
어둠에서 똥이 떠오르는 하늘. 강 건너 빌딩 숲이 붉게 물들기 시작한다.

## 29. 타이틀.

방범카메라. 사설보안카메라. 교통카메라. 몰래카메라 등의 시점.  
감시 중인 서울의 곳곳이 모자이크로 소개되다

**Title : 감시 監視 (가제)**

### 30. SJ 홀딩스. 아침

현관 회전문을 통과하는 하윤주. 정장차림의 회사원들 사이로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

층별 입주업체의 상호가 적힌 커다란 안내판.  
무수히 많은 상호들을 올려보는 하윤주의 눈.

로비

지문인식기도 인터폰도 없는 유리문 앞.  
내부공간을 가리고 있는 벽. 아무도 없는 데스크에 붙은 [SJ 홀딩스] 간판.  
하윤주. '어찌지?' 하는 표정. 순간. 지잉~ 유리문이 열리고

**하윤주**  
???

머리 위 감시카메라. 하윤주를 무심히 내려보고 있다.

감시반

데스크를 지나 사무공간으로 들어가는 하윤주. 조심스런 발걸음.  
파티션으로 나뉜 사무공간이 드러나며 책상에 앉은 십여 명의 남녀들이 보인다.

커다란 지도를 보며 대화를 하는 사람. 수배자 몽타주를 넘겨보는 사람들 중  
지하철 쇼핑녀. 신문을 보던 대학생. 맥도날드의 햄버거 남들이 눈에 띄고

낮익은 얼굴들에 당황하는 하윤주. 순간. '응?' 고개를 드는 쇼핑녀. 코드네임 타조.

**황반장(OFF)**  
왔어?

하윤주. 돌아보면. 위잉~ 면도기로 수염을 밀고 있는 황반장. 깔끔해진 옷차림.  
타조. 하윤주를 지나쳐 황반장에게 두툼한 편지봉투다발을 건넨다.

공무용 봉투들에 찍힌 빨간색 [출두명령서] 도장. 발신은 [경찰청 내사과].

**타조**  
이번엔 무더기로 보냈어요.  
**황반장**  
새끼들... 보고 싶음 오든가.

쌩~ 눈길도 주지 않고 지나치면 편지봉투를 휴지통에 버리는 타조.  
하윤주. '뭐지?' 하며 돌아보다 황반장을 쫓아간다.

실장실

벌컥! 문이 열리면 림스틱을 바르다 놀라는 이실장. 시크한 외모. 하이톤의 목소리.

**이실장**  
노크!!!

쾅! 재빨리 문을 닫는 황반장. 똑똑! 노크를 하고 다시 벌컥 열며

**황반장**  
신입입니다.

[감시]. [단서획득]. [기억력] 등 모든 항목에 [A+] 체크가 된 보고서.

리포트와 하윤주를 번갈아 보는 이실장. 까칠한 표정.

**이실장**  
아슬아슬 했네.

마지막 메모 칸에 써 있는 손 글씨. [단점 : 손버릇이 고약함]

이실장. 툭. 툭. 툭. 긴장한 듯 의자 손잡이를 치는 하운주를 보며

**이실장**  
정했어?  
**하운주**  
???  
**이실장**  
코드네임. 안정했어?

하운주. 잠시 생각하다

**하운주**  
꽃사슴?  
**황반장 / 이실장**  
꽃?

**정보분석실**  
스크린에 떠 있는 똥의 사진들.

**이실장**  
닉네임 몰먹는 하마. 어제 은행강도 현장에서 확인됐다.  
교통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덕분에 동선이 파악됐어.

삼삼오오 앉아있는 감시반. 정보팀들과 멀찍이 떨어져 앉은 하운주의 모습.

중간중간 하운주를 탐색하는 감시반. 정보팀의 시선.

하운주. 브리핑에 집중한 듯 툭. 툭. 툭. 손가락을 움직이고 있다.

스크린화면 - 동선이 표시된 서울시 지도가 뜨고

**이실장**  
서울 곳곳을 유랑하고 계시는데 중구가 생활권으로 분석됐다.  
신당역을 중심으로 도보 20분 반경이 작전구역.  
충기강도 용의자라 특별히 1명에게 무장이 허락됐다.

이실장. 과묵한 인상의 나무늘보에게 휴대용 금고를 건넨다.  
뒤이어 스크린 앞에 서는 황반장. 원경으로 찍힌 특공일행을 하나씩 가리키며

**황반장**  
운전 하나, 작업 넷, 안테나 하나. 총 여섯 분.  
건국 아래 가장 나이스한 도적떼가 등장했다.  
개인금고 여러 개가 털렸는데 속에 뭐가 들었는지, 주인이 누구인지  
5천만의 관심이 쏠렸어. 요놈들 잡으면 4/4분기 실적 끝.  
놈들이 나이스한 만큼 우리도 전력을 다하자고.  
질문?

일제히 하운주를 돌아보는 감시반. 정보팀. '뭐지?' 하운주가 고개를 들면 탄성을 피운다.

**황반장**  
아. 소개. 이 쪽은 정보팀.  
애는 송팀. 그리고 이군. 박군. 변군. 김군. 조군.

자주 볼 일 없으니 이름은 알 필요 없고.

인사도 하기 전에 소개가 끝나는 정보팀.

**황반장**

이쪽은 같이 일 할 감시반.  
나무늘보, 원숭이, 독사, 앵무새, 타조, 두더지, 다람쥐.  
이름은 맨투맨으로 들도록 해.

코드네임에 어울리는 감시반들의 얼굴이 하나씩 소개된다.

**황반장**

여기는 신입. 경찰대 29기 하윤주. 코드네임은 꽃돼지다!

순식간에 끝나버린 소개. 하윤주. 황반장을 뵈히 보다

**하윤주**

돼지...

중얼거리며 꾸벅~! 인사를 한다.

**장비실**

이어몰드, 리시버, 소형카메라 등 각종 장비를 체크하는 감시반. 전문적인 모습.

하윤주, 타조와 함께 이어몰드, 각종 장비를 테스트 중.  
황반장은 치질 방식, 목 베개 등을 챙기며 신문 속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다.

**황반장**

“매사에 노력하지만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이다.  
동남쪽이 길하고 남서쪽이 흉하다...”

캐비닛을 여는 하윤주, 잘 다려진 경찰제복이 옷걸이에 걸려있다.  
삐죽! 옆 캐비닛에서 고개를 내미는 다람쥐. 한 눈에 어려보이는 얼굴로 잔뜩 무게를 잡고

**다람쥐**

어이 신입! 감시반 일이 뭔지 모르나?  
계급장 달 때 아님 국립묘지 갈 때나 입는 건데 제복을 뭐하러 챙겨?

스윽~ 멋진 선배 포스로 캐비닛에 기댄다.

**다람쥐**

첫 출근에 첫 작전이야. 어리버리 말고 긴장타라고!  
물론 힘든 일 있음 언제든 선배에게 물어보고...

하윤주, 다람쥐의 반말에 뵈히 쳐다보며

**하윤주**

몇 살?

**다람쥐**

네?

순간. 팡! 캐비닛을 닫고 있는 힘껏 누르는 황반장.

**황반장**

지랄들한다. 동아리냐?

문틈에 손이 낀 다람쥐. 고통을 참으며 이를 악문다.

**다람쥐**  
아.파.요.

지하주차장  
넓은 주차장에 세워진 트럭, 택시, 승용차, 밴 등 다양각색의 차들.  
엘리베이터가 열리며 각자의 차로 흩어지는 감시반.

경찰뱃지, 신분증을 캐비닛에 넣고 문을 닫는 하윤주.

지휘 밴에 올라타는 나무늘보, 황반장, 하윤주.  
나무늘보, 이실장에게 받은 휴대용 금고를 글로브 박스에 넣는다.

은색 지휘 밴을 따라 주차장을 나오는 차들. 도로에 진입하며 도심으로 섞여 들어가고

### 31. 도심거리. 낮

[신당역] 표지를 지나는 지휘 밴과 감시반 차량들, 사거리를 기점으로 흩어지는 모습.

지휘 밴  
운전석의 나무늘보, 뒷좌석에 마주 앉은 황반장, 하윤주.

서울시 구역별 지도, 망원경, 광대역 무선송수신기 등이 설치된 지휘 밴의 뒷좌석.

무전기를 드는 황반장, 꼭신해 보이는 의자에 반쯤 누우며

**황반장**  
불편한 거 없지?

구석 보조의자에 앉은 하윤주, 고개를 끄덕이며 나름 편한 자세를 찾으려 노력 중.

**황반장**  
여기는 송골매, 동물원 돌리나?

### 32. 통제실. 낮

지도와 멀티모니터가 설치된 지하 공간, 헤드셋을 낀 다섯 남짓 남녀.  
후덕한 인상과 품매. 목소리는 꾀꼬리인 통제녀.

**통제녀**  
동물원, 아주 잘 들립니다.

**황반장(E)**  
애인 생겼어? 오늘 따라 툰이 좋아~!

통제녀, 수줍게 고개를 숙이면 마이크를 들고 벽시계를 보는 이실장, 날카로운 모습.

**이실장**  
잠담금지.  
지금부터 범죄정보관리법에 따라 모든 교신은 녹음 된다.

신호를 받고 녹음기 버튼을 누르는 통제남.

**이실장**  
2012년 11월 07일 13시 정각, 동물원 개장!

캡션 기능을 통해 모니터에 찍히는 이실장의 무전.

-2012년 11월 07일 십삼시 정각. 동물원 개장.

지휘 밴

접이식 보드를 펼치는 황반장.

작전구역이 프린트된 지도에 장기를 두듯 칩! 칩! 동물자석을 붙인다.

황반장

앵무새 3번 출구. 사거리 근방 타조.

하윤주. 황반장의 배치작업과 거리의 감시반을 번갈아 보는 모습.

[신당역] 출입구에서 나오는 영업사원 앵무새.

원숭이의 택시에서 내리는 관광객 타조.

가이드북을 펼치는 타조 뒤로 지나가는 힙합소년 다람쥐.

지휘 밴 차창에 비치는 퀵서비스 오토바이. 헬멧을 내리며 멀어지는 두더지.

인도 변 떡볶이트럭에 앉아 오뎅국물을 끓이는 독사.

이해 할 수 없다는 표정의 하윤주. 스윽~ 스마트폰을 꺼내 보란듯이 위성지도를 띄운다. 이번엔 나침반을 꺼내는 황반장. 골똘한 표정.

황반장

오늘은 남서쪽이 좋다. 타조. 독사 특히 주의 할 것.

하윤주. '졌다!' 고개를 설레설레 젓는다.

### 33. 유흥가. 저녁

네온이 가득한 거리. 행인 사이로 보이는 지휘 밴. 정체된 앞 차에 막혀 속도를 줄인다.

지휘 밴

순간. 창 너머로 스치는 뚱뚱한 사내. 지휘 밴을 앞서 멀어지는 뒷모습.

하윤주

반장님!

하윤주. 몸을 일으켜 문고리를 잡으면. 철컥! 도어락 버튼을 누르는 손.

황반장

동작그만!

하윤주

???

무전기를 드는 황반장. 창 너머 사내를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다.

### 34. 통제실. 저녁

스피커에 울리는 무전. 벌떡 일어서는 이실장.

황반장(E)

563 A 서쪽 방향. 검은색 야구모자. 곤색 점퍼. 갈색 바지.

타조가 백업하고 다람쥐가 접근한다.

스윽~ 지도 위를 움직이는 다람쥐 모양의 자석.

유홍가

골목에서 나오는 다람쥐. 휴대폰을 꺼내며 마주 오는 사내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걸어오는 모습. 모자를 써서 확인이 어렵다.

다람쥐

야! 그 개쉐이가 빠짝 숙이고 들어오는데 넌들 어쩌냐?  
그니까 넘어 윈 수를 쓰던지...

친구와 통화를 하는 척 상황을 보고하는 다람쥐.

무전을 들고 벌떡 일어나서는 황반장. 짜앙~! 길게 클락손을 누르고

“워야?” 두리번거리는 행인들. 사내 역시 고개를 들면 똥과는 다른 얼굴.  
다람쥐. 사내를 스치며 무전기에 속삭인다.

다람쥐

하마가 아니다. 하마가 아니다.

통제실

실망한 이실장. 퍽! 휴지통을 걷어차며

이실장

에라이~!

척! 휴지통을 잡는 통제남. 벌떡 일어나 원위치 시킨다.

### 35. 지휘 뺨. 저녁

감시반의 호흡을 본 하윤주. 살짝 민망해진 표정.

황반장

첫 날부터 오바하지마. 언젠간 만나는 게 사람 인연.  
석 달 내내 허탕 치다 운명처럼 찾은 일도 있었다고.

하윤주

운명?

황반장

간호사 연쇄살인. 알지?

하윤주

신문에서 봤죠. 첨단 과학수사의 성과...

황반장

신문에 나온 건 싹다 개소리지. 지금부터 잘 들어...

황반장. 괜히 분위기를 잡으며

황반장

이건 실화야...

감시반의 이어플드에 울리는 황반장의 목소리.

황반장(E)

뽕비가 구슬프게 내리는 날이었더랬지...  
'오늘도 허탕 치나?' 본부로 차를 모는데  
옆으로 똥차 두 대가 나란히 달리는 거야...

'또 시작이다~' 실실 웃는 감시반들과 이실장의 교차.

떡볶이 트럭의 독사. 수첩을 꺼내 [간호사 연쇄살인] 옆에 짝대기를 긋는다.

‘이건 또 뭔가?’ 황반장을 뵈히 보는 하윤주.

**황반장**

와우~ 쌤 쌤차! 로또 사야 되나? 잠시 생각하는 순간.  
뒤에서 쿵!!!

황반장, 뒷목을 잡으며 불꽃 연기를 펼친다.

**황반장**

어떤 새끼가 내 뒤를 받은 거지,  
“나이스! 전치 3주. 병원 가서 놀자” 목을 잡고 내리는데...

어라?

**하윤주**

???

**황반장**

뒷 차에서 내린 놈이 석 달 닳새를 찾던 그 새끼 거야!

**하윤주**

정말?

**황반장**

실화라니까?

**하윤주**

에이~ 거짓말.

자신도 모르게 황반장의 무릎을 툭! 치는 하윤주.  
황반장. ‘이건 뭐지?’ 잠시 당황하다 씨익~ 웃는다.

**황반장**

그래. 거짓말. 거짓말 같은 운명이었지.

이어지는 잠복의 시간. 깊어가는 도시의 밤.

### 36. National Foods. 낮

수입 물건이 가득한 이국적 풍경의 마트. 카운터에 앉은 무표정한 필리핀 남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임스. 카운터 위에 브로슈어를 놓고 사내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한다.

진열대를 지나 냉동고 안으로 사라지는 제임스.

지하창고

수입박스들이 가득한 창고. 한 쪽 벽에 숨겨져 있는 기다란 책상.  
제임스. 정통에게 받은 서류 봉투를 열면  
[삼화회계법인] 내부 설계도. 주변 거리의 정밀지도. 금고. 보안장치들의 사진이 들어있다.

널따란 벽에 설계도와 주변 지도. 사진들을 하나씩 붙이는 제임스.  
설계도, 지도를 찬찬히 훑는 눈.  
매직을 꺼내 지도 위에 선을 그리는 손.

구석 의자에 앉은 제임스. 계획이 완성된 지도를 보며 쿡! 스톱워치 버튼을 누른다.

### 37. 지휘 밴. 밤

놀이터 옆에 세워진 지휘 밴.  
보조자의 하윤주와 달리 치질 방식. 목 베개. 전동안마기로 무장한 황반장은 썩썩한 모습.

부양~ 골목을 달리는 배달 스쿠터. 지휘 뺨을 스치며 사라진다.

다시 인적이 뜸해지는 골목. 하운주. 참다못해 작게 하품을 하면 벼락같은 고탐이 울리고

**황반장**  
꽃돼지! 방금 전 스쿠터!!!

정신이 번쩍 드는 하운주.

**하운주**  
빨간색 스쿠터. 43 보 나 8330. 노란색 파카. 회색 츄리닝. 헬멧을 써 신원 불상.  
체격이 왜소해 용의자에서 제외했습니다.

**황반장**  
좋아! 잠시 휴식. 졸리면 세수하고 와!

지휘 뺨 모니터 1 - 하운주. 건너편 건물 화장실로 달려가는 뒷모습.  
지휘 뺨 모니터 2 - 골목을 걷는 사내 두 명. 불량한 인상의 사내와 안경을 쓴 중년남.

모니터를 보는 황반장. 으스스한 곳으로 사라지는 두 남자를 보며 인상을 쓴다.

### 38. 통제실. 밤

멍한 표정의 통제녀와 얼굴이 벌게진 통제남.  
부스럭~ 부스럭~! 화장실 상황이 생중계 되는 스피커.  
지퍼를 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줄기 가느다란 물소리가 이어진다.

**하운주(E)**  
씨발. 의자만 편해도 살겠는데...

어이없다 혀를 차는 이실장.

**이실장**  
애 미친 거 아냐?

### 39. 화장실. 밤

시원한 표정으로 눈을 감는 하운주. 순간. 이어몰드에 울리는 목소리

**황반장(E)**  
꽃돼지.  
**하운주**  
네! 말씀하십시오.  
**황반장(E)**  
음... 특별히 할 말은 없다.

웃음을 참는 감시반들의 교차. 바닥에 쓰러져 어깨를 들썩이는 다람쥐.

돌처럼 굳어 버린 하운주. 슬며시 리시버 전원을 끈다.

### 40. 고철상. 밤

고철상 앞을 지나는 하운주. 약간 민망한 표정. 문득. 철문 안을 들여다 보면

내복 차림의 안경남과 여행가방을 꺼안은 여자. 무릎을 꿇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모습. 칼을 들고 두 사람 앞을 어슬렁거리는 사내 둘. 험악한 분위기.

**안경**

일주일만 주십시오. 이자까지 쳐서 드리겠습니다.

**사체 1**

이자? 조또 이 새끼가 사람 병맛인줄 아나...

니들 튀려고 한 거 모르는 줄 알아?!

퍽! 퍽! 사체 2의 손에 턱이 돌아가는 안경. 울먹이는 부인. 눈물을 흘리며 애원한다.

**안경처**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돈. 제가 만들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사체 1**

아이구- 사랑이 돌는다...

저 새끼 아줌마 여기 있다고 했는데도 도망친 놈이야.

담벼락에 기대 한운주. 화가 난 표정. 잠시 망설이다 리시버 전원을 켜다.

**하운주**

817 B 고철상. 301 상황.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 41. 지휘 밴. 밤

황반장. 모니터를 보며 냉정한 표정.

모니터 - 고철상을 살피는 하운주의 뒷모습.

**황반장**

센터에 신고했으니까 신경 꺼.

**하운주(E)**

반장님!

**황반장**

행동수칙 몰라?

#### 42. 통제실. 밤

스피커에 울리는 두 사람의 무전. 씩씩한 표정의 이실장과 통제녀.

**황반장(E)**

노출되면 피곤해지니까 조용히 차로 와.

**하운주(E)**

센터에서 오면 늦어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지휘 밴

퍽! 무전기를 던지며 인상을 쓰는 황반장.

창 밖으로 보이는 하운주. 고철상 안으로 들어간다.

#### 43. 고철상. 밤

사내들에게 다가가는 하운주.

**하운주**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엥?' 잠시 당황하다 가소롭다는 듯 웃는 사채 1. 2.

**사채 2**

그러는 년 뭐 하자는 건데요?

하운주를 위아래로 훑는 끈적한 시선. 건들건들 다가오며

**사채 2**

왜? 언니도 같이 놀까?

느끼하게 웃으며 손을 뻗는 사채 2.

순간. 휘익~ 팔을 꺾으며 급소를 차는 하운주. 날렵하고 간결한 동작.

**사채 1**

이런 미친...

하운주. 뒤에서 덮치는 사채 1을 피해 부웅~ 무릎을 날리면 퍽! 코피를 뺨으며 쓰러진다.  
후~ 숨을 고르며 안경부부에게 다가가는 하운주.

**하운주**

괜찮으세요?

가방을 챙기는 두 사람.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자리를 피하는 모습.

순간. 하운주의 머리채를 잡는 사채 2. 휘익~ 칼을 휘두르면

척! 사채 2의 손을 잡는 황반장.

으득! 손을 꺾어 칼을 떨어뜨리고 퍽! 퍽! 묵직한 주먹으로 턱을 날린다.

멀리 울려오는 경찰 사이렌 소리. 끼익~! 고철상 앞에 멈춰서는 지휘 밴.

**황반장**

타!

굳은 표정의 황반장. 하운주를 무작정 밴 안으로 밀어 넣고

부웅~ 끌목을 달리는 지휘 밴. 마주오는 경찰차와 엇갈리며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다.

#### 44. 지하주차장. 밤

인적없는 주차장. 지휘 밴 옆에 서 있는 황반장과 하운주의 모습.

철썩! 하운주의 뺨을 때리는 황반장.

**황반장**

감시반 행동수칙.

놀란 눈으로 황반장을 보는 하운주.

**황반장**

대답 안 해?!

**하운주**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황반장**

더 크게!!!

엄청남 고향에 움찔하는 하윤주. 반사적으로 소리친다.

**하윤주**

하나! 모든 임무는 감시에서 시작해 감시로 끝난다!

하윤주의 목소리를 듣는 감시반들. 씩씩한 표정의 교차.

**하윤주**

들! 허가 된 임무 외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셋! 노출된 즉시 임무에서 제외된다!

이상입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하윤주와 표정 없는 황반장. 서로를 노려본다.

**황반장**

눈 앞에서 사람이 죽어도 보고 후 철수.

허가된 감시대상을 넘어선 모든 행동은 절대 불가.

영장 떨어지기 전까진 녹음. 녹화도 안 되고 무장도 못한다.

**하윤주**

눈 앞에서 사람이 죽는데 철수합니까?

“허가. 불가. 안 되고. 못한다!”

뭐가 이렇게 복잡하죠? 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니까????!!!

씩씩한 표정의 황반장. 흥분한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우리 일은 두 눈으로. 두 발로 용의자를 쫓는거다.

하고 싶은 걸 다하는 순간 우리 일은 불법사찰이 되는 거야.

**하윤주**

...

**황반장**

너같이 앞 뒤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새끼 필요없다.

돌아서 차에 올라타면 부웅~ 출발하는 지휘 밴.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홀로 남은 하윤주. 눈물이 맺히는 눈. 멍한 표정으로 벌게진 뺨을 만진다.

#### 45. SJ 홀딩스. 아침

지하주차장의 감시반들. 각자의 차에 올라타는 모습들.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달려나오는 하윤주.

**하윤주**

죄송합니다!!!

고함을 치며 꾸벅 인사를 하고 지휘 밴으로 달린다.

**지휘 밴**

슬그머니 뒷자리에 올라타는 하윤주. 눈치를 보며 보조의자에 앉으면  
싸늘한 정적이 흐르는 차 안. 신문 속 [오늘의 운세]를 보는 황반장.

**황반장**

“지난 불화는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

신문을 접으며 하윤주를 본다.

**황반장**

꽃돼지띠. 오늘의 운세. 어제 일로 빼치기 없음.

씨익~ 웃는 황반장을 보며 따라 웃는 하윤주.

**46. 잠복 몽타주. 아침~밤**

나른한 음악과 함께 감시반. 정보 분석실. 통제실의 모습이 스케치된다.

**도심거리**

도심을 달리는 지휘밴. 창 밖을 바라보는 하윤주.  
[National Foods] 간판이 붙은 수입상품마트를 무심히 스치고

설문조사원. 택시기사. 전봇대 위 수리공. 떡볶이 트럭 등 거리 곳곳에 위치한 감시반의 모습.

**정보 분석실**

똥의 사진과 모니터 속 전과자 몽타주들을 비교하는 송팀. 붉게 충혈된 눈.

**송팀**

넌 작고. 넌 대가리가 크고. 넌 알랐고.  
넌... 워~ 자알~ 생겼다~!

**지휘 밴**

창 밖을 스치는 행인들과 머리 위의 감시카메라들.  
골똘한 표정의 하윤주. 툭, 툭툭. 손잡이를 두드리는 손가락. 감시카메라를 확인하는 눈.

**황반장**

시끄럽다~

뚝! 멈추는 손가락. 하윤주. 약봉지를 뜯는 황반장을 보며

**하윤주**

비타민입니까? 몸에 좋은 건 막 나눠 먹고 그러던데...

실실 웃는 황반장. 손바닥 위 알약들을 하나씩 가리킨다.

**황반장**

고혈압. 지방간. 당뇨... 어... 이거 뭐더라?  
암튼. 님은 해당사항 없음.

**통제실**

통제남. 마이크를 잡는 이실장을 보며 녹음 버튼을 누른다.

**이실장**

겨우 8일 패다. 지치지 말고 긴장할 것!  
09시 정각. 녹음시작. 동물원 개장!!!

**황반장(E)**

원숭이 5번 출구. 사거리 두더지...

지도 위 동물자석들과 감시반의 잠복 모습이 디졸브 되다 화면 페이드아웃.  
압전 상태에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 툭, 툭툭. 토도도툭.

**황반장(OFF)**

쫘!!!

둥이 트기 시작하는 도심. 빠르게 타임랩스 되며 다시 밤이 되면.

불 꺼진 빌딩 숲을 유영하기 시작하는 카메라. 톱! 톱! 톱! 빠르게 돌아가는 초침 소리.

**47. 빌딩 옥상. 밤**

망원경을 든 제임스. 맞은편 [삼화회계법인] 빌딩을 보고 있다.

망원경 시점 - 불을 밝히고 있는 사무실들. 야근중인 직원의 모습.

쿵! 타이머 버튼을 누르는 손. 빠르게 줄기 시작하는 초침.  
순간. 툭! 툭! 각종의 불이 하나 둘 꺼지기 시작하며 빌딩 전체가 어둠에 잠긴다.

망원경 시점 - 평범한 밤거리의 풍경. 골목에 세워진 봉고차 한 대.  
망원경 시점 - 불 꺼진 중간층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랜턴 불빛.

**상황실(E)**

삼화회계법인. 삼화회계법인. 327 상황. 327 상황.

이어폰에 울리는 무전음. 제임스. 빠르게 줄어드는 시계초침을 보며 중얼거린다.

**제임스**  
늦어.

**48. 삼화회계법인. 밤**

삐이~ 삐이~ 어둠 속에서 점멸하는 보안등. 바닥에 던져진 공업용 드릴과 루페. 청진기.  
양 문이 열린 커다란 금고 안으로 엄청난 수의 서류박스들이 보인다.

헤드랜턴을 쓴 특공과 허수아비. 스쿠프.  
[S모터스 기업평가 B안]라고 적힌 박스들을 가방에 넣는 모습.

내실로 뛰어 들어오는 고혈압. 어이없다는 표정.

**고혈압**

뭐야? 꿀랑 박스 훔치러 온 거야?

3.2.1. 시간이 줄다 멈추는 타이머. 동시에 일제히 불이 켜지는 [삼화회계법인] 빌딩.

**49. 도심거리. 밤**

똥. 초조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는 모습.

목직한 가방을 메고 봉고에 올라타는 특공일행. 부앙~ 급출발을 하는 봉고.

**똥**  
휴~

한숨을 쉬며 골목으로 사라지는 똥. 벽에 담배를 비벼 끄고 콩초를 주머니에 넣는다.

**50. 빌딩 옥상. 밤**

제임스. 가방을 정리하다 갑자기 굳어 버리는 표정. 천천히 망원경을 꺼내는 손.

**제임스**

...

망원경 시점 - [삼화회계법인] 옆 오피스텔. 망원렌즈를 낀 카메라를 보는 남자.

서로를 보는 제임스와 오피스남. 긴장되는 순간.

망원경 시점 - 맞은 편 남자. 카메라셔터를 연신 눌러대는 모습.

계단

짱! 옥상 문을 박차는 제임스. 무서운 속도로 계단을 달리고

### 51. 오피스텔. 밤

모자를 쓰며 로비를 지나는 제임스. 건물 밖 거리를 스치는 경찰차들.

복도

딩동~ 초인종을 누르는 손. 스피커에 울리는 목소리.

**오피스남(E)**

누구세요?

제임스. 도어카메라를 피해 다시 초인종을 누르고

정적이 흐르는 복도. 옆 집 현관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다시 벨을 누르는 제임스. 현관 안 오피스남의 짜증 섞인 목소리.

**오피스남(OFF)**

뭐야? 너 누구야?

체인을 거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

퍽! 체인을 끊으며 들어가는 제임스. 짱! 닫히는 문.

동시에 문을 열고 나오는 옆 집 여자. 강아지를 안고 '뭘지?' 하는 표정.

오피스텔

오피스남의 입을 막고 있는 제임스. 경동맥에 만년필이 박혀있다.

**제임스**

혼자 살아?

조용하고 차분한 목소리.

**오피스남**

으... 으...

끄덕이는 오피스남. 입을 막은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어 나오고

**제임스**

좋아.

제임스. 오피스남의 고개를 틀며 만년필을 뽑으면 최악~ 벽지를 적시는 핏줄기.

푸욱~! 다시 명치 깊숙이 파고드는 펜촉.

**52. 통제실. 밤**

고요한 분위기. 잔뜩 긴장한 통제녀. 통제남.

**이실장**

저희도 교대 없이 보름째입니다. 변명이 아니라... ???

이실장. 전화가 끊긴 듯 얼굴이 벌개지면 재빨리 볼륨을 줄이는 통제녀.

퍽! 퍽! 퍽! 박살 나는 핫라인 수화기와 본체.

**이실장**

후~

분이 풀린 듯 머릿결을 정돈하는 모습.

통제남. 새 전화기를 가져와 연결하고 통제녀는 다시 볼륨을 높인다.

**53. 지휘 밴. 밤**

스피커에 울리는 밝은 목소리.

**이실장(E)**

한 시간 전, 삼화회계법인이 털렸다네요?

이 새끼들 회계조작에 기획부도, 암튼 다양한 조건으로 특검 중인데

어찌 아셨는지 압수수색 전날에 자료가 몽~땅 사라지셨어요.

덕분에 무능한 경찰은 마강뉴스 메인 먹는답니다.

삐이~ 마이크를 던진 듯 엄청난 노이즈가 울리면 태연하게 볼륨을 줄이는 황반장.

**하윤주**

저... 반장님.

**황반장**

왜?

**하윤주**

아닙니다.

황반장. '싱겁긴...' 쳐다보다 지도보드를 펼친다.

**54. 구둣방. 밤**

마주 앉은 제임스와 정통. 무거운 분위기.

**제임스**

다시 나가야 할 거 같습니다.

구두를 닦다 고개를 드는 정통. 제임스의 셔츠에 된 핏방울을 보며 날카로워진다.

**정통**

뒤틀린 확실히 했고?

정통을 보며 작게 끄덕이는 제임스.

똑똑! 정적을 깨는 노크소리. 수납장을 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서류봉투와 차 키.

**정통**

나갈 준비는 내가 할 테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만 더 해.

제임스

...

정통

지금 부탁하는 걸로 보여?

길게 마주보는 두 사람. 팽팽한 긴장감.  
손을 뺀어 차 키를 잡는 제임스. 서류봉투를 둔 채 드륵~ 수납장을 닫는다.

제임스

가보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차에 타는 제임스. 생각에 잠긴 듯 멈춰있다 시동을 걸면 순간, 룸미러에 보이는 검은 형체.

제임스

!!!

목을 조르는 뒷좌석의 밀실남. 살갓을 파고드는 구두끈.

구두끈

누군가와 통화중인 정통.

정통

자기가 누군지 기억을 깨워줘야죠.  
걱정 마십시오. 작업은 차질 없이 진행합니다.

지하주차장

붉게 충혈된 눈. 벌개지는 얼굴. 제임스. 힘겹게 손을 뺀어 기어를 바꾸고 부앙~! 엑셀을 밟으면  
평음을 내며 벽을 향해 질주하는 세단. 팡! 충돌하면 밀실남이 앞유리에 쳐박힌다.  
철컹! 안전벨트를 풀어 사내의 목을 감는 제임스.

밀실남

컹!

역전된 상황. 터질 듯 벌개지는 밀실남의 얼굴. 입가에 거품을 물기 시작하고  
순간, 힘을 풀어 벨트를 놓는 손.

제임스

...

제임스. 부서진 유리 사이로 보이는 얼굴. 천천히 호흡을 가다듬는다.

구두끈

드륵~ 문을 열고 들어오는 제임스. 원망과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

정통

...

정통. 말없이 서늘하게 웃어보이면  
휘익~ 선반 위 서류봉투를 거칠게 채가는 손.  
제임스. 차갑게 뒤돌아서며

제임스

마지막입니다. 부탁하는 거 아닙니다.

**55. National Foods. 새벽**

셔츠를 벗으며 창고로 들어오는 제임스. 등에 보이는 오래된 흉터. 학대의 흔적인 듯.  
물잔에 만년필을 넣는 손. 펜촉에서 흘러나오는 검붉은 액체가 서서히 물에 섞인다.

**56. 주유소. 낮**

차 안의 하윤주. 밖에서 통화 중인 황반장을 보고 있다.

**송팀(E)**

똑같습니다. 카메라사각으로 사라지고.  
더는 드릴 게 없네요...

**황반장**

지랄~ 우린 무좀에 치질에 개고생인데 드릴 게 없어?

짜증 가득한 황반장. 통화를 하며 주변을 살피는 날카로운 눈.

**57. 정보 분석실. 낮**

머리를 긁적이는 송팀. 멀티모니터에 찍힌 [삼화회계법인] 주변의 똥을 본다.

**황반장(E)**

말한 건 알아봤고?

송팀. 정보 1을 돌아보면 손가락을 펼치며 '5분!' 입을 병긋거리고

**송팀**

5분 안에 나옵니다.

**주유소**

인상을 쓰며 벌컥! 지휘 뱅 문을 여는 황반장.

**황반장**

씨발~ 그 놈의 5분. 끊어 이 새끼야!

**하윤주**

반장님.

**황반장**

왜 또???!!!

**58. 지휘 뱅. 낮**

뒷자리 가득 대형 지도를 펼치는 하윤주. 길 위에 그려진 표시를 가리킨다.

**하윤주**

X는 하마가 찍힌 감시카메라 위치고  
O는 지난 보름 간 잠복 위치들... 이걸 지휘 뱅 동선.

**황반장**

이게 뭐?

**하윤주**

잠복 범위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주유일지를 적다 놀라는 나무늘보. 싸늘해지는 차 안 분위기.

**황반장**

이유는?

**하윤주**

다른 출구. 다른 동선. 항상 카메라 사각으로 사라지는 걸 보면  
하마는 머리를 쓰는 겁니다.

지도 위 점들을 하나씩 가리키는 하윤주. 집중한 모습.

**하윤주**

여기 X 표시들에서 사각이 시작되는 길을 이어보면...

매직을 꺼내 속속~ 새로운 선을 그린다.

**하윤주**

이렇게 세 개의 교차점이 나옵니다.

재 생각엔 이곳들을 중심으로 잠복을 한다면...

말을 멈추고 황반장의 반응 살피는 하윤주.

지도를 보고 있는 황반장. 매직을 뺏어 속속~ 줄을 긋더니 X표 두 개를 더하며

**황반장**

이렇게 하면 다섯 개.

'어?' 눈이 커지는 하윤주. 새로 생긴 X표에 다시 줄을 그으며 좌표를 추가한다.

**하윤주**

그럼, 여섯 개.

호흡이 척척 맞는 두 사람. 우웅~ 진동하는 휴대폰.

**송팀(E)**

나왔습니다. 좌표 불러드릴까요?

전화를 받는 황반장.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정보팀 씹새들이 3일 걸렸어.

**하윤주**

???

**황반장**

니가 애들보다 1분 빨랐다고!

빠럭! 전화를 끊으며 하윤주의 불을 길게 꼬집는다.

**하윤주**

으... 아.파.요.

**정보분석실**

멍~ 전화를 쳐다보는 송팀. 울먹이며 중얼중얼.

**송팀**

아... 우리 보고 씹새들이란다...

모니터 속 지도에 표시된 복잡한 선들과 좌표들이 하윤주의 지도와 디졸브 된다.

지휘 밴  
지도보드를 두고 마주 앉은 황반장과 하윤주.

**황반장**  
해 봐.

하윤주. 척!척! 동물자석을 배치하면

**황반장**  
다람쥐가 에이스니까 두더지랑 바꾸는 게 좋아.  
앵무새는 시야가 넓으니 여기가 좋고.

장기관 혼수를 하듯 하윤주의 손을 잡고 하나씩 다시 배치를 해준다.

**황반장**  
동료들 능력과 개성도 알아야 해.  
현장에서 일을 건 동료 밖에 없으니까.

**하윤주**  
예.

**황반장**  
자아~ 그리고 오늘의 히든.

척! 지도 위에 달라붙는 돼지모양자석.

**황반장**  
리베로 꽃돼지 투입.

끼익~! 인적이 드문 골목에 멈추는 지휘 밴.

드록~ 문을 열고 내리는 하윤주. 기합이 잔뜩 들어갔다.  
순간. 등 뒤에서 울리는 고함소리.

**황반장**  
동작 그만!!!

황반장. 놀라 돌아보는 하윤주에게 척! 가방을 건네준다.

**하윤주**  
아!

**황반장**  
차 조심 하고. 모르는 아저씨가 말 걸면 반쯤 죽여 버리고.

**하윤주**  
다녀오겠습니다.

흐뭇한 표정의 황반장과 나무늘보, 행인 사이로 섞이는 하윤주를 보며

**황반장**  
저거 저거... 나사 한 두 개만 조이면 완벽한데...

### 59. 유흥가. 저녁

호텔들과 안마 간판이 길게 이어진 골목. 경찰차 한 대가 경광등을 밝히며 서 있다.  
전봇대 뒤에 숨은 똥. 신경질적으로 과자를 씹으며 통화 중.

**똥**

초코니? 그냥 오빠 집에서 할까?

뭐라 대꾸하는 말을 들으며

**똥**

이러기야? 오빠, 너 아님 안되는 거 알잖아?

똥, 문득 눈을 돌리면 전봇대에 붙어있는 붉은 명함.  
혈빛은 일본모델이 찍힌 [커피도 타는 여자] 출장안마 광고.

**60. 통제실. 밤**

지도 위 붉은 점들을 보는 이실장. 마이크를 든다.

**이실장**

송골매, 긴장도 풀 겸 재밌는 얘기 좀 해보지?

**황반장(E)**

재밌는 거?

**61. 지휘 뱅. 밤**

순간, 우웅~ 진동하는 휴대폰. [발신자 내사과 개새].  
수신거부를 누르는 황반장. 잠시 생각하다 실실 웃으며

**황반장**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때? 3년 전 간첩단 사건.

**이실장(E)**

그게 웃겨? 부끄러운 과거지?

**황반장**

왜? 보름 동안 아홉 시 뉴스 탐 먹고  
불법사찰이네 간첩단 조작이네 특검에 청문회...

**62. 도심거리. 밤**

잠복위치를 바꾸는 감시반과 인파 속 하윤주의 교차.

**황반장(OFF)**

윗대가리들 싹 다 날아가고 통쾌했잖아?

미소를 보이는 거리의 감시반들. 하윤주. 동료들의 응원에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통제실**

웃음이 터지는 이실장.

**이실장**

그 때 언론에 제보한 바보 같은 놈... 어디서 뭐하나 몰라?

**황반장(E)**

그러게~? 그 놈 거 어디서 뭐 하고 있겠지?

수첩을 펼치는 독사. 잔뜩 궁금한 얼굴로 [언론에 제보한 놈 누구?]라고 쓴다.

**거리**

웃음을 참으며 골목을 빠져 나오는 하윤주.  
순간, 우뚝 멈춰서는 발걸음. 신발 끈을 묶는 척 몸을 숙이고

하윤주의 시점 - 맞은 편 골목으로 들어가는 사내의 뒷모습. 똥과 닮았다.

**하윤주**  
372 A 골목, 동쪽방향. 하마로 보입니다.

**지휘 밴**  
어느새 날카로워진 황반장.

**황반장**  
몇 프로?  
**하윤주(E)**  
체형, 키, 90 프로 이상. 얼굴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황반장**  
좋아! 타조. 앵무새가 372 C 에서 접근. 다람쥐. 두더지는 백업 한다.  
꽃돼지. 미행수칙 읊어봐!  
**하윤주(E)**  
하나. 지형지물 숙지. 둘. 감시대상과의 거리 유지. 셋...  
**황반장**  
됐고. 들키지 않는 게 최고다!

**빌딩 로비**  
후문을 통과해 로비를 달리는 하윤주. 재킷을 뒤집어 입는 날렵한 모습.  
휘익~ 회전문을 빠져 나오며 모자를 쓰면, 변신 완료.

**63. 시장골목. 밤**

불 꺼진 상점들. 담배를 피며 걷는 사내와 골목 건너편의 하윤주.

**앵무새(E)**  
확인 들어갑니다.

모퉁이를 돌며 등장하는 앵무새와 타조. 다정하게 팔짱을 낀 모습.  
사내 쪽으로 길을 건너는 두 사람. 점점 줄어드는 거리

**시장남**  
어이쿠.

순간. 골목에서 나오는 남자. 기둥에 부딪히며 카트 가득한 박스를 쏟으면  
건너편 길로 방향을 트는 사내. 커플과 엇갈려 버린다.

**64. 통제실. 밤**

스피커에 울리는 무전.

**앵무새(E)**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하윤주(E)**  
방향을 틀어 379 A 서쪽 방향으로 갑니다.

무릎을 치며 아쉬워하는 이실장.

**65. 지휘 밴. 밤**

황반장. 동물자석을 빠르게 재배치하며

**황반장**

커플 빠지고 다람쥐. 두더지 들어가! 원숭이 백업.

다람쥐와 두더지. 골목을 달린다.

## 66. 상점가. 밤

끼익~! 으스스한 골목에 멈춰서는 오토바이. 헬멧을 제끼며 편의점 안을 주시하는 두더지.

두더지의 시점으로 보이는 사내.  
물건을 고르며 고개를 숙이고. 기둥에 가리고. 얼굴을 확인하기 힘든 상황.

**두더지**

50 프로 이상. 마우린 다람쥐가 합니다.

부웅~ 오토바이를 몰고 사라지면  
골목을 나오는 하운주. 편의점 주변을 살피다 당황한 듯

**하운주**

다람쥐가 보이지 않는다. 반복한다. 다람쥐가 보이지 않는다.

당황한 표정의 황반장. 이실장의 교차.

## 67. 편의점. 밤

소시지를 뜯는 사내. 먹거리와 콘돔이 가득한 바구니를 계산대 위에 뒤집는다.

뵙! 뵙! 바코드를 찍는 점원의 손. 짜증 가득한 목소리.

**점원(OFF)**

그렇게 막 드시면 어떡해요?!

‘뭘?’ 소시지를 씹으며 고개를 드는 사내. 무섭게 노려보는 똥.

**똥**

어쩌까?

**점원(OFF)**

어찌긴요?

질세라 고개를 드는 점원. 어느새 옷을 갈아입은 다람쥐. 씨익~ 귀엽게 웃는다.

**다람쥐**

렌지에 데워드시면 완전 맛있는데... 해보세요.

‘어?’ 편의점을 돌아보는 하운주.

**지휘 뱀**

무전기에 울리는 다람쥐의 경쾌한 목소리.

**다람쥐(E)**

백프로! 레알 장담합니다.

황반장. 주먹을 불끈 쥐며 무전기를 든다.

**황반장**

꽃돼지 현재 위치!

**하윤주(E)**

310 C 골목. 하마를 쫓아 맞은 편 오피스텔로 이동 중입니다.

**황반장**

동전 있어?

멈칫하는 하윤주. 주머니를 뒤지고

**68. 오피스텔. 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똥과 하윤주의 뒷모습.

하윤주를 보는 똥. 날카로운 눈빛. 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똥**

너 혹시...

스피커에 울리는 똥의 목소리. 긴장하는 이실장과 황반장.

출장안마 명함을 꺼내 보인다.

**똥**

커... 커피도 타는 여자?

‘뭐?’ 헤드폰을 빼며 되묻는 하윤주.

**하윤주**

네? 커피?

**똥**

그치? 아니지?

몹시 아쉬워하는 똥의 표정 위로 땡~! 엘리베이터가 도착음이 울린다.

**지휘 밴**

한숨 돌리는 황반장. 무전기를 들며

**황반장**

꼭대기 층 누르고...

**엘리베이터**

꼭대기 층을 누르는 하윤주의 손. 뒤이어 7층 버튼을 누르는 똥의 손.

과자를 씹는 똥. 하윤주의 뒤태를 감상하는 변태 눈빛.

**황반장(E)**

열쇠를 찾는 척 가방 뒤진다.

끈적한 시선을 의식하며 배낭을 뒤지는 하윤주.

동전소리. 과자 씹는 소리가 리듬을 타며 커지다가 땡~! 문이 열리면

**황반장(E)**

지금!!!

하윤주. 복도에 동전을 쏟아버린다.

**하윤주**